

##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국립공원 방문객의 인지, 태도, 행동의 변화-

Effectiveness of Ecotourism Interpretation: An Assesment of the Effect of Interpretation on the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among a Korean National Park Visitors

이진형\*\*

Lee, Jin-Hyung

### ABSTRACT

*Interpretation has been considered as the 'soul' of ecotourism due to its possible effectiveness on the visitors' environmental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s; yet, to date, little research has empirically tested their effect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the abov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s at a Korea national park on visitors's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383 visitors of Jirsan National Park from August to October 2010.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 developed by Ham and Weiler (2006), was used to measure the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the interpretations made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he visitors' cognition,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s. In particular, the respondents were most likely to agree that the interpretation programs made positive impacts on their attitud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ile they were least likely agree that the interpretation program influenced a positive impact on their personal value system.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visitors' motivation might determine better than the length of interpretation time for the effectiveness of interpret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discussed at the end of the study.*

**핵심용어(Key words) :** 생태관광(Ecotourism), 자연해설(Environmental interpretation), 해설평가척도(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 국립공원(National park)

www.kci.go.kr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과제번호 B00904)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e-mail: aigod0613@gmail.com

## I. 서 론

생태관광(ecotourism)에 대한 여러 논제 중 자원해설(interpretation)은 생태관광의 핵심적 요소로서 여러 학자들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Oram(1996: 92)은 “효과적인 자원해설이야말로 자연관광(nature-based tourism)을 진정한 생태관광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Weiler와 Ham(2002: 549)은 자원해설이야말로 생태관광의 핵심이자 쉼과 같은 것이고, 생태가이드들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생태관광에 있어 자원해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에는 자원해설이 생태관광객의 관광경험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Knudson, Cable & Beck, 2003: 65-79). 말하자면, 효과적인 생태관광 자원해설은 탐방객의 생태자원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태도와 생태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한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쳐, 생태관광객의 탐방경험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태자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관광해설이 생태관광객들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생태자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대한 경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Powell & Ham, 2008:468). 일부 진행된 연구들에서조차도 자원해설이 방문객의 지식과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Ham, 2007). 다시 말해, 어떤 연구에서는 생태관광객의 자원해설참여가 생태자원에 대한 지식에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원해설 참여가 생태자원에 대한 지식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다. 생태관광자원해설참여가 생태관광자원 보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그 결과는 더욱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Powell & Ham, 2008: 469).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Weiler & Smith(2009)는 생태관광자원해설이 이루어지는 방식(가령, self-guided tour vs guided tour)이나 시간 등에 따라 생태관광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Ballantyne, Paker, Hughes & Dierking (2007)은 생태관광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해설의 양이나 방식 못지않게, 탐방객의 참여동기나 동반자유형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바 있다.

서구관광학계에서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실제로 유발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관련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생태관광 자원해설과 관련해서는 자원해설의 필요성과 원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수의 초보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예를 들어 윤화영·김동석, 2004; 이주희, 2004; 한국산림휴양학회 편역, 2001; 조계중, 2005).

최근 들어 생태관광객들이 자원해설 요소 중 탐방객들이 어떠한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이진형·여영숙, 2010), 아직까지 국내에선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생태관광객의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자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생태관광지에서 최근 들어 바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원 내의 자원훼손을 최소화하기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왕릉이나 고궁과 같은 문화관광에 대한 자원해설이 방문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연구되긴 했지만(김미옥·김민주, 2010; 김정하·오미숙, 2011), 이러한 연구역시 관광자원해설이 방문객의 인지와 태도, 행동에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중 한곳인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객센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해설을 접한 탐방객들의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지식, 태도, 행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탐방객들의 자원해설 효과에 대한 인식이 탐방객의 탐방행태(동반자, 탐방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응답자들의 탐방행태가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관리자에게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를 유발하는가?

서구에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protected area)에서 자원해설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Knudson et al., 2003: 5), 자원해설의 원칙이(principle)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Freeman Tilden이 자원해설분야의 고전이 되어 있는 *Interpreting Our Heritage*를 출간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효과적인 자원해설에 방안 등이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sup>1)</sup>. 이렇듯 자원해설이 생태관광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데에는 생태관광자원해설이 탐방객의 탐방경험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탐방객의 생태자원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생태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Oram, 1996; Moscardo, 1998; Ham & Weiler, 2002).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가정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적은 거의 없었다(Oram, 1996: 81). 1990년대 중반 이후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실제로 관광객들의 지식,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owell & Ham, 2008: 468).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국립공원이나 동물원 등과 같이 자원해설프로그램이 발달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몇몇 연구들은 자원해설이 방문객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친 영향 중 한 두 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Madin & Fenton 2004, Wiles & Hall, 2005; Smith, Broad & Willer, 2008), 다른 연구들은 자원해설이 이 세 가지 측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Oram, 1997; Powell & Ham, 2008; Tubb, 2003; Wiler & Smith, 2009), 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Oram(1997)은 호주 Tangalooma리조트에서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에 대한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그 이전 보다 방문객들의 병코돌고래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이 방문객들의 돌고래에 대한 태도와 돌고래 친화적인 행위의도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ubb(2003) 또한 영국의 Dartmoor 국립공원의 High Moor방문객센터 탐방객들 중 자원해설 프로그램 참여 후의 탐방객들이 참여전의 탐방객들보다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아는 비율과 탐

1) 서구에서 이루어진 자원해설의 역사와 자원해설에 대한 연구동향은 이진형·여영숙(2010), 133-134 p. 참조

방도중 특히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율에 있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과 후의 방문객들 간에 이 국립공원의 동물에 대한 태도와 자원관리방법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차이만이 발견되었다.

한편 Madin & Fenton(2004)은 호주의 대보초해상국립공원(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면서, 자원해설이 방문객들의 이 공원의 자원에 대한 지식의 변화와 이 지역 생태와 관광객이 이 지역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역시 자원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산호초의 파괴와 회복과정 및 산호초 생태계 유약성, 대보초해협 관광의 허용범위 등의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자원해설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의 지식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태도와 행동의도의 변화에는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반면, Wiles & Hall(2005)의 연구에서는 자원해설이 국립공원방문객들의 지식과 태도 모두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Mesa Verde 국립공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자원해설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본 이 연구에서는 해설가를 동반한 90분 동안의 해설이 방문객들의 산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이 보고된 바 있다.

생태관광자원해설이 방문객의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앞의 연구들과 달리 Smith, Sue & Willer(2008)는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방문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호주 Healeville 동물원에서 행해진 이 연구 결과 자원재활용과 길거리에서 죽은 동물은 치우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방문객 중 81%가 해설 직후 보존활동에 대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54%가 보존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 6개월 이후 사후 전화 인터뷰결과 응답자중 80%정도가 보존활동을 시작하거나 보존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동물원방문 때 들은 자원해설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들이 자연보호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몇몇 연구들은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방문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 전반에 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Powell & Ham(2008)은

자원해설을 동반한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크루즈 생태관광상품 이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을 조사 한 바 있는데, 연구결과 객관적인 지식테스트에 있어 생태관광객들은 관광 전보다 관광 후에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에 대한 지식이 약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87%의 방문객들은 일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 그리고 약 85%의 방문객들은 해양생물학, 자연사, 환경보전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에 참여할 의사에 있어서도 이 생태관광에 참여한 이후 약 1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관리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약 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50 찬조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관광 전에는 응답자들 중 약 40%정도만 매우 찬성하고 50%가 찬성하는 정도의 태도를 보인 반면, 관광 후에는 약 54%가 매우 찬성하고 45%가 찬성하는 정도의 태도를 보여,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약 78%의 관광객들이 관광 후 평균 \$172.41를 기부해 총 4,655불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관광자원해설이 방문객들의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달리 크루즈를 이용한 장기간의 관광경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자원해설이 태도와 행동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Weiler & Smith(2009)는 자원해설의 성과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 이용하여, 호주의 Werribee Open Range 동물원에서 운영하는 자원해설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동물원 안에 설치되어 있거나 운영되는 자원해설매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자원과 자원 관리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보다 많은 자원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동물원 방문 경험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앞으로 이 동물원과 자원해설 프로그램에 대해 구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자원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자연보호에 대해 더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식을 갖게 되고, 추가적인 자원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과 해당지역에 더 머무르고 싶은 경향 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생태관광지에서 운영하는 자원해설 프로그램의 수나 종류에 따라 관광객들의 인지,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생태관광자원해설의 효과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

생태관광 자원해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자원해설이 방문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여러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자원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나 방법 시간 등에 따라 자원해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Ham, 2007; Weiler & Smith, 2009), 일부 연구들은 이에 못지않게 참여 동기, 동반자 유형과 같은 자원해설을 듣는 수요자들의 사회 심리적 상황 요인 역시 자원해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acker & Ballantyne, 2002; Hughes & Morrison-Saunders, 2005).

가령 Packer & Ballantyne(2002)은 호주의 해변리조트 주변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등 세 곳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행해지는 해설의 효과에 미치는 방문객들의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미술관이나 수족관보다는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배움과 발견의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세 장소 모두에서 배움과 발견의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방문객일수록 실제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Hughes & Morrison-Saunders(2005)는 자원해설의 강도가 서로 다른 두 곳(Penguin Island vs. Treetop Walk)에서 자원해설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원해설의 강도는 방문객들의 인지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탐방객들의 속성과 탐방환경은 탐방객들의 인지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제공되는 자원해설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탐방객들의 참여 동기와 동반자유형과 같은 탐방객 속성과 제공되는 자원해설 서비스의 유형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원해설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척도의 구성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m & Weiler(2006)가 관광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지식, 태도, 행동의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으로 명명된 이 척도는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의 6개 측면을<sup>2)</sup> 측정할 수 있는 2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연구소(The Sustainable Tourism Cooperative Centre)에 의해 채택되어 호주의 국립공원에서 자원해설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 Weiler와 Smith(2009)는 이 척도를 사용하여, 호주 Werribee Open Range 동물원에서 운영하는 자원해설프로그램이 방문객의 인지,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m & Weiler(2006)가 개발한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을 본 연구가 이루어진 지리산 뱀사골 탐방센터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된 Ham과 Weiler(2006)의 자원해설효과 평가 척도의 문항과 각 문항이 자연해설의 어떤 측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모든 평가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Likert Type)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만, 추가 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구입, 재방문 의사 등을 묻는 문항은 가부를 묻는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탐방객들의 참여동기와 동반자유형 등에 따라 자원해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탐방객들의 참여동기와 동반자 유형, 사회 인구학적 특성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특히 탐방객들의 참여동기는 Packer와 Ballantyne(2002)이 생태관광과 같은 교육적인 여가(educational leisure)의 참여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중 '배움과

2) Ham & Weiler(2006)는 추가프로그램 참여, 재방문의사, 기념품 구입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별도의 측면(dimension)으로 간주하여, 이 척도가 관광자원해설 효과의 10개의 측면을 측정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4개의 문항을 단일 차원 즉 하나의 측면으로 간주하였다.

발견의 동기'와 '체험 재미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여섯 문항을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 자원해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과 각 문항의 차원

설문항목	차원
a. 재미있었다.	태도
b. 유익했다.	인지
c. 이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인지
d.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태도
e. 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보게 되었다	인지/태도
f. 좋았다	태도
g. 이해하기 수월하다	인지
h.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인지
i.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인지
j. 만족스러웠다.	태도
k.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관련이 있었다.	인지
l. 이 곳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인지
m. 자연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하였다.	인지
n.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다	인지/태도
o. 흥미로웠다.	정서
p.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었다.	인지
q. 지리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인지
r. 한국전쟁 당시 이곳 사람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인지/태도
s. 지리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지
t. 나 자신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인지/태도
1. 다른 해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행동
2. 지리산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행동
3. 다음에 또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행동
4. 이곳의 기념품을 사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행동
5. 이곳에 방문하기를 권할 것이다.	태도/행동
6. 흥미로웠다고 말할 것이다.	태도/행동
7. 돈을 들여 방문할 만하다고 말할 것이다.	태도/행동
8. 재미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태도/행동
9.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태도/행동

## 2. 연구 장소 및 표본의 추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1호 국립공원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국립공원이기도 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뱀사골 탐방안내소에서 이루어 졌다.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 위치해 있고, 총면

적 1,452m<sup>2</sup> 지상 2층 건물로, 2007년 5월에 개소되었다(<http://jiri.knps.or.kr>). 이 탐방안내소 1층에는 '지리산 탐방'이라는 테마로 지리산의 자연생태관이 설치되어있고, 화장실, 안내데스크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2층에는 한국전쟁시 안내소 인근에서 벌어진 지리산 빨치산과 토벌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전시관과 안내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탐방객들에게 안내소를 개방하고 있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 전문요원인 에코가이드(ecoguide)가 안내소내의 전시관을 해설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 및 안내소 내의 전시관과 인근의 탐방로를 함께 해설해 주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은 탐방객들이 1, 2층의 전시관을 둘러보는 데는 약 15분내외가 소요되고, 예약을 한 탐방객들이 에코가이드와 함께 전시관내의 자연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약 30분정도가 걸린다. 또한 예약을 한 탐방객들이 지리산국립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는 전시관과 야외 탐방로에 대한 자연해설을 합쳐 1시간가량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8월 13일 안내소의 탐방관리과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해당센터를 둘러 본 후, 동년 8월20일부터 해당센터를 재방문하여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방문객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파악하였고, 그 이 후 주중과 주말을 이용 10월 30일까지 방문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말과 금요일을 중심으로 해당 탐방센터를 방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본 연구의 표본은 해당 일에 안내소를 방문한 방문객 중 1,2층의 전시관을 둘러본 방문객과 사전예약을 통해 자연해설프로그램이나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탐방객 전부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는 감사표시로 사은품을 제공한 결과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었다.

특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일원의 생태관광을 이용하는 주 방문객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단체라는 점을 발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18세 이상으로 생각했던 조사대상자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표 2〉 조사일, 조사일별 주요 해설 유형과 조사대상 방문객 특성

조사일	해설유형	주 방문객 특성
8월 20일(금)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8월 21일(토)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8월 28일(토)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9월 4일(토)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9월 10일(금)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9월 18일(토)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9월 25일(토)	방문객 센터관람	가족단위 및 친구/사회단체
10월 2일(토)	에코가이드 동반 센터 내 자원해설	사회단체
10월 10일(일)	에코가이드 동반 센터 내 자원해설	학생단체
10월 15일(금)	에코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자원해설	학생단체
10월 22일(금)	에코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자원해설	학생단체
10월 27일(수)	에코가이드 동반 센터 내 자원해설	사회단체
10월 30일(토)	에코가이드 동반 센터 내 자원해설	사회단체

본 연구에서는 탐방객의 사전예약여부와 자원해설 참여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사전예약 후 자원해설만 참여한 집단, 사전예약 후 생태관광에 참여한 집단, 사전예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계획하고 센터를 관람한 집단, 현장에 와서 우연히 관심이 생겨 센터를 관람한 집단으로 나누어 각 해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14일 동안의 조사 결과 총 420부의 설문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문결과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3개의 설문을 삭제하였고, 센터 관람이 아닌 화장실 이용 등 편의시설을 위해 들렀다가 설문에 응답한 사람 등 자원해설 프로그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14명을 추가로 삭제해, 총 383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번 조사연구에 응답한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센터 탐방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먼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6%와 54%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전체의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40-50대로 전체 응답자의 32.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2-3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전체의 18.5%와 6.8%를 점유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초·중·고교 학생이 164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부와 사무직이 각각 15.3%, 14.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자영업과 교직, 서비스직, 생산직이 각각 6.3%, 3.1%, 3.1%, 1.8% 이었고, 무직 등 기타가 9.8%이었다.

## 2.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관광자원해설 효과 측정 척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센터 자원해설의 효과 평가 척도의 신뢰도

문항		Cronbach's α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과 자신의 대한 가치관의 변화(인지/태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559
	우리사회 바라보는 관점 변화	.567
	한국전쟁 당시 이 곳 사람의 삶 알게 됨	.394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642
지리산에 대한 관심증가 (인지)	이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631
	지리산의 자연과 역사를 생각해 봄	.638
	이 곳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고 싶음	.667
	지리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733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태도)	지리산에 대한 관심 증가	.681
	자연보호의 중요성 더 깊이 인식	.686
	자연보호 의식이 강해짐	.732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태도)	자연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	.720
	재미있었다	.633
	좋았다	.759
	만족스러웠다	.700
긍정적 구전의사 (태도/행동)	흥미로웠다	.702
	이 곳에 방문하기를 권할 것임	.762
	흥미로웠다고 말할 것임	.831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임	.742
	재미있었다고 말할 것임	.783
해설의 유익성과 적절성 (인지)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임	.796
	유익했다	.515
	이해하기 쉬웠다	.528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	.421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	.428

〈표 3〉은 응답자들이 자연해설의 효과의 6개의 서로 다른 측면(dimension)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의 척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Weiler & Ham의(2009) 연구에서처럼, 모든 차원 신뢰도가 .60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구전의사’ 차원의 경우 .915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지리산에 대한 관심 증가’( $\alpha = .855$ ),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 $\alpha = .855$ ),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alpha = .846$ ), 지리산과 한국전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alpha = .744$ ), 해설의 유의성과 적절성( $\alpha = .685$ ) 등 다른 차원들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차원의 단일 차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차원에 포함된 항목들의 평균점수를 각 차원의 대표 값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응답자들의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

탐방객들의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각 차원별로 살펴 본 결과, 지리산 뱀사골 탐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자원해설이 전반적으로 탐방객들의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행동의도에 어느 정도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평균 5.60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이 긍정적 구전의사(평균 5.50),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평균 5.49), 지리산에 대한 관심 증가(평균 5.23), 해설의 유의성과 적절성(평균 5.17)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은 전시관 관람이나 자연해설 또는 생태관광 참여가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과 자신의 가치관 변화에(평균 4.90)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표 4〉).

이는 본 연구의 기간 동안 지리산 뱀사골 탐방센터를 찾은 탐방객들이 전반적으로 이 센터에서 행해진 자원해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자원해설에 참가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자원해설에 대한 구전의사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경우 자원해설이 본인의 관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변화시킨 것과 관련된 진술이나 해설의 유의성 및 적절성에 관련된 진술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해 호주의 동물원에서 실시된 자원해설의 효과를 살펴본 Weiler & Smith(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3) 기념품 구입 의사 등 네, 아니오 측정한 4개 문항의 신뢰도는 측정에서 제외되었다.

있다. 다시 말해 Weiler & Smith(200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자원해설의 6가지 측면 중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 긍정적 구전의사,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관심증가, 해설의 유익성과 적절성,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표 4〉 탐방객들의 자연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

문항		항목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표준편차)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과 자신의 가치관 변화 (인지/태도)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4.64(1.57)	4.90(1.14)
	우리사회 바라보는 관점 변화	4.84(1.45)	
	한국전쟁 당시 이 곳 사람의 삶 알게 됨	5.41(1.51)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4.72(1.53)	
지리산에 대한 관심증가 (인지)	이 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5.16(1.42)	5.23(1.13)
	지리산의 자연과 역사를 생각해 봄	5.59(1.32)	
	이 곳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고 싶음	5.0(1.51)	
	지리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5.23(1.36)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태도)	지리산에 대한 관심 증가	5.31(1.44)	5.60(1.20)
	자연보호의 중요성 더 깊이 인식	5.64(1.39)	
	자연보호 의식이 강해짐	5.69(1.35)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태도)	자연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	5.50(1.37)	5.49(1.15)
	재미있었다	5.33(4.61)	
	좋았다	5.63(1.37)	
	만족스러웠다	5.58(1.40)	
추가 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구입, 재방문 의사 (태도/행동)	흥미로웠다	5.40(1.40)	N/A
	추가적인 해설프로그램 참여 의사 생김	75.1%	
	지리산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 생김	75.9%	
	지리산에 또 와보고 싶은 마음 생김	88.1%	
긍정적 구전 의사 (태도/행동)	지리산과 관련된 기념품 사고 싶은 마음 생김	52.2%	5.50(1.20)
	이 곳에 방문하기를 권할 것임	5.42(1.43)	
	흥미로웠다고 말할 것임	5.53(1.37)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임	5.44(1.45)	
해설의 유익성과 적절성 (인지)	재미있었다고 말할 것임	5.53(1.33)	5.17(1.06)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것임	5.58(1.39)	
	유익했다	5.55(1.31)	
	이해하기 쉬웠다	5.46(1.42)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련	4.84(1.64)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	4.79(1.51)	

#### 4. 자원해설참여 유형에 따른 자연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응답자들의 자원해설참여 유형에 따른 자연해설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탐방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특히 100% 초·중·고교 학생단체로 구성된 사전예약을 한 생태관광 참여자들의 경우 거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생태관광 자연해설의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다. 반면 주로 가족단위 탐방객이었던 사전계획만 하고 예약은 하지 않은 채 전시관 관람을 한 탐방객 유형의 경우 모든 차원에서 자원해설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자원해설의 추가프로그램 참여, 지리산에 추가 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구입, 재방문의사 등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탐방유형에 따른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일원변량분석)

	사전계획 없는 전시관 관람 (n=104)	사전계획 한 전시관 관람 (n=42)	사전예약 가이드동반해설 (n=126)	사전예약 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n=89)	F값	P값
한국전쟁에 대한 관점과 자신의 가치관 변화	4.78 M <sup>a</sup>	5.34 H	5.05 M	4.62 L	5.27	.001
지리산에 대한 관심증가 시킴	5.26 M	5.90 H	5.26 M	4.86 L	8.86	.001
자연보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5.47 L	6.09 H	5.45 L	5.40 L	4.48	.004
자연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긍정적 구전	5.46 L	5.86 H	5.54 L	5.34 L	2.17 8	.090
의사	5.35 L	6.03 H	5.49 L	5.45 L	3.45	.017
해설의 유익성과 적절성	5.12 L	5.64 H	5.11 L	5.09 L	3.07	.028

a: DMR(Duncan Multiple Range) Test H(High)>M(Middle)>L(Low)

이러한 결과는 탐방객들은 보다 많은 수의 해설매체 보다 긴 시간의 해설을 들을 경우 전반적으로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Weiler & Smith(2009)의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가장 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자연해설이 이루어진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탐방유형에 따른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교차표 분석)

	사전계획 없는 전시관 관람 (n=104)	사전계획 한 전시관 관람 (n=42)	사전예약 가이드동반해설 (n=126)	사전예약 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n=89)	$\chi^2$ 값	P값
추가프로그램 참여 의사	72.0%	81.4%	80.8%	65.9%	7.495	.058
지리산에 더 머무르고 싶음	83.2%	81.4%	72.8%	67.0%	8.107	.044
지리산을 또 와보고 싶음	93.5%	93.0%	83.2%	84.1%	7.772	.051
지리산 기념품 구입	47.1%	53.7%	57.6%	50.0%	2.744	.433

탐방유형에 따라 동반자 유형 및 탐방동기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자원해설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탐방유형과 동반자유형 간에 교차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방유형과 동반자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탐방유형에 따른 탐방동반자 유형의 차이

	개인	가족	학교단체	친구 및 기타단체	$\chi^2$ 값 P-value
사전계획 없는 전시관 관람	7 (6.5%)	68 (63.6%)	-	32 (29.9%)	291.19 (.001)
사전계획 한 전시관 관람	3 (7.0%)	26 (60.5%)	-	14 (32.6%)	
사전예약 가이드동반해설	-	7 (5.4%)	75 (58.1%)	47 (36.4%)	
사전예약 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	-	90 (100%)	-	
전체	10 (2.7%)	101 (27.4%)	164 (44.4%)	94 (25.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예약을 한 방문객들의 경우 학교단체나 친구 및 기타사회단체가 가장 많은 동반자 유형이었지만, 사전계획 없는 전시관 관람이나 사전에 계획만 하고 예약을 하지 않은 채 전시관을 관람한 경우는 가족이 가장 많은 동반자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예약을 통한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100% 초·중·고등학교 학생단체였다. 이는 각각의 탐방유

형이 탐방동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원해설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탐방유형에 따른 탐방동기의 차이(일원변량분석)

	사전계획 없는 전시관 관람 (n=104)	사전계획 한 전시관 관람 (n=42)	사전예약 가이드동반해설 (n=126)	사전예약 가이드 동반 생태관광 (n=89)	F값	P값
배움 및 발견동기	4.86 H <sup>a</sup>	5.26 H	4.89 H	4.37 L	5.16	.002
체험 및 재미동기	5.06	5.42	5.23	5.24	.896	.443

a: DMR(Duncan Multiple Range) Test H(High)>L(Low)

실제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탐방유형별로 학습·발견동기와 체험·재미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각 탐방유형별로 배움 및 발견동기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6$ ,  $p=.002$ ). 특히 Duncan의 사후다중범주 비교결과 100%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사전예약을 하고 생태관광에 참여한 집단의 배움 및 발견동기가 다른 집단의 그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험 및 재미동기에 있어서는 이 네 탐방유형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V. 요약 및 논의

생태관광에 있어 자원해설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Weiler & Ham, 2002:549). 자원해설이 생태관광의 “꽃”으로 간주되어 온 데에는, 자원해설을 통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의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생태관광 자원해설이 탐방객들의 지식, 태도, 행동(의도)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았다(Powell & Ham, 2008:468).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도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탐방객들의 환경 친화적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자원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원해설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의 뱀사골 탐방센터를 찾은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Ham & Weiler(2006)가 개발한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를 이용하여 이 센터 내에서 행해지는 생태관광자원해설이 탐방객들의 인지, 태도, 행동(의도)의 변화를 유발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뱀사골 탐방센터에서 행해진 자원해설은 탐방객들의 인지, 태도, 행동의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뱀사골 탐방센터 해설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해설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보호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진술과 추가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뱀사골 탐방센터에서 진행된 해설프로그램의 유익성과 적절성 및 해설프로그램이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자원해설이 탐방객의 지식적 측면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치관과 관점과 같은 태도의 변화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ram, 1997; Tubb, 2002).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의 연구결과와(Weiler & Smith, 2009) 마찬가지로 탐방객들이 자원해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자원해설의 재미있고 눈높이에 맞으며 체계적이고 테마가 있었느냐(enjoyable, relevant, organized, thematic)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자원해설이 탐방객들과 적절하고 유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Interpretation Evaluation Tool Kit을 사용하여 호주 동물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원해설의 효과를 측정한 Weiler & Smith(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보다 다양하고 긴 시간의 자원해설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자원해설에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좋은 평가를 한 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움과 발견의 동기를 가장 덜 가지고 있었던 초중고 학생 단체 탐방객들의 경우 비록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생태관광프로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긴 했지만, 사전계획 하

에 상대적으로 강한 배움과 발견의 동기를 가지고 15분 정도 탐방센터만을 둘러본 가족단위 관광객들에 비해 자원해설의 효과 전반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eiler & Smith(2009)의 연구결과와 달리 생태관광 자원해설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해설공급자가 제공하는 해설의 매체 수나 시간 못지 않게 수요자인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의 동기나 특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allantyne et al., 2007). 말하자면, 재미 동기가 강한 학생단체 참가자들에게는 단지 해설매체나 시간이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짧고 재미있는 해설이 이루어 질 때 자원해설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는 생태관광 자원해설효과가 해설공급자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설공급자인 해설가와 해설의 수요자인 탐방객간의 역동적인 과정의 소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기간 동안 특정한 관광자원해설센터를 방문한 방문객의 전부를 표본으로 추출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기간 동안 이 자원해설센터를 방문한 방문객들과 타 관광자원해설센터를 방문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미옥·김민주(2010). 왕릉자원해설에 대한 지각과 방문만족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4(4), 61-83.
- 김정하·오미숙(2011). 자원해설이 방한외국인의 고궁방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2), 29-48.
- 윤화영·김동석(2004). 우리나라 산림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4), 41-51.
- 이진형·여영숙(2010). 생태관광 자원해설에 대한 평가: IPA의 적용. 『관광학연구』, 34(5), 131-153.
- 이주희(2004).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개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8(1), 1-7.
- 조계중(2005). 『자연환경해설개론』. 수문출판사.
- 한국산림휴양학회 역편(2001) 『숲과 자연환경해설안내』. 수문출판사.
- Ballantyne, R., Packer, J., Hughes, K., & Dierking, L.(2007). Conservation

- learning in wildlife tourism settings: Lessons from research in zoos and aquarium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3(3), 367-383.
- Ham, S., & Weiler, B.(2002). Interpretation as the centerpiece of sustainable wildlife tourisms. In Harris, R., Griffin, T., & Williams, P.(eds.), *Sustainable Tourism: A Global Perspective*. London: Butterworth-Heinemann, Chapter 3, 35-44.
- \_\_\_\_\_ (2006). *Development of a Research-Based Tool for Evaluating Interpretation*. Center for Sustainable Tourism.
- Ham, S.(2007). Can interpretation really make a difference? Answers to four questions from cognitive and behavior psychology. *Proceedings of Interpreting World Heritage Conference*, 42-52. Vancouver, Canada, March 25-29.
- Hughes, M., & Morrison-Saunders, A.(2005). Influence of on-site interpretation intensity on visitors to natural areas. *Journal of Ecotourism* 4(3), 161-177.
- Knudson, D., Cable, T., & Beck, L.(2003). *Interpre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2nd Edition).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Madin, E., Fenton, D. M.(2004).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in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n assesment of programme effectivenes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2), 121-137.
- Moscardo, G.(1998).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tourism: Functions, examples and principles, *Journal of Tourism Studies*, 9, 2-13.
- Orams, M. B.(1996). Using interpretation to manage nature-based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4(2), 81-94.
- \_\_\_\_\_ (1997).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Can we turn tourists into greenies?. *Progress in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 295-306.
- Packer, J. & Ballantyne, R.(2002). Motivational factors and the visitor experience: A comparison of three sites. *Curators*, 45(3), 183-198.
- Powell, R., & Ham, S.(2008). Can ecotourism interpretation really lead to pro-conservati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Evidence from the Galapagos Island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4), 467-489.
- Smith, L., Broad, S., & Weiler, B.(2008). A closer examination of the

- impact of zoo visits on visitor behavio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544-562.
- Tubb, K. N.(2003).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pretation within Dartmoor National Park in reaching the goals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6), 476-498.
- Weiler, B., & Ham, S.(2001). Tour guides and interpretation in ecotourism. In *Encyclopedia of Ecotourism*, Edited by: Weaver, D. Wallingford, UK: CABI Publishing.
- Weiler, B., & Smith, L.(2009). Does more interpretation lead to greater outcomes? An assessment of impacts of multiple layers of interpretation in a zoo contex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7(1), 91-105.
- Wiles, R. & Hall, T.(2005). Can interpretive messages change park visitors' views on wildland fire? *Journal of Interpretive Research*, 10(2), 18-35.

2012년 3월 5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4월 18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4월 3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